



이어서 그報酬를사람의게求치안는것이나 墨子の兼愛는 남의어버이를사랑함은 이에제어버이를사랑함이된다고하는 意味의相對的의그것이라는點이 다름니다.

(二)그의非戰論-이와갓흔兼愛主義를 가진그는크게非戰論을主張했습니다. 한사람을죽이는者는殺人犯이라하여 大罪로녁이며 穢惡하나라도 남의所有를侵害하면 盜賊하라하여 梟首罪라고합니다. 그런데千萬人의無辜한人民을殺害하고 남의나라를세앗는새에는 이를戰勝者라하여讚譽하니 이엇진矛盾임니까한사람을죽인것이罪면 十人을죽인것은十倍의 百人을죽인것은百倍의罪에當할것입니다. 이와갓치 墨子는 戰爭은 더큰發人罪라主張하여 絶對로反抗했습니다. 또그는戰爭은 天과先王과人民과의어느便으로보던지 그것을 즐겨하는이가업다고說明했습니다. 그리고그는戰爭할時期가업다고말했습니다. 겨울은너무춥기때문에 녀름은너무덥기때문에 다戰爭하기에適當치안타고했습니다. 그리고보면 봄과가을은戰爭하기에 가장適當한時期이지만은 봄에人民으로戰爭에달리게하면 播種의期를 일케할것이며 가을에戰役에싸르게하면 收穫의節을 늦칠것이니 이에年中에 戰爭할時期는업다고했습니다. 이와갓치 戰爭은 天의 뜻과 先王의가르침과 人民의福利를 無視背叛하는것이라고力說했습니다. 그다음에그는 戰爭은 百害가잇슬지언정 一利도업다고主張했스니 戰爭으로말때암아 一二의王 諸侯는 利를얻는다고하겠스나 萬民으로볼새에는 그것은말할수업는 것이라고생각하는 것이 墨子의思想입니다. 아-그의主張은侵略으로일삼는現代軍國主義에 얼마나한攻撃임이까.

이와갓치 兼愛를主張하고非戰을絶對한그는 人民의幸福 을爲하여 儉約을說했습니다. 墨子의說에依하면 人間生活의必須條件은衣食住三者라고합니다. 그런데 이三者도 慾望대로할것이안이라 衣는寒暑, 食은飢餓, 住는風雨를막는데 淸चित이라하여 空然한虛飾을 反對했습니다. 어대까지던지 物質生活의節儉을主張했습니다.

(三)그의非命說-東洋思想의一大問題는 命運論입니다. 古來로 支那에는 이運命論에 三大說이잇스니 命皆命說과非命說과天命說입니다. 皆命說은列子의說이며 天命說은儒家의教이며 非命說은 이墨子의主張입니다.

人間의모든運命은 全히先天的으로 定한것으로 富貴貧賤, 壽夭窮達이 그어는 것이 先天的運命안인것이업다는皆命說은 列子의說입니다. 그래人間의努力에는 아모힘을 보지안은큰宿命論입니다. 그런데 우리墨子는 이皆命說에 反對했습니다. 그의非命說이 命이것입니다. 人間의運命은 先天的으로 定한것이안이라고하얏스니 그證明은 그의有名한三表說에잇습니다. 사람의모든運命이란 것은 自己努力如何에 依從되는것이라고하여 사람은 모름즉이 自己運命의開拓

者라고하는 舊鬪努力을 力說했습니다. 이갓치 墨子는어대까지든지 社會改良家이였습니다.

여기까지 墨子의根本思想의大概를 적었습니다. 아래로 그의有名한三表說과 尙同說을 極히簡畧하게紹介하겠습니다.

(四)三表說-墨子의說을 보면 人道의本原을 天에두었습니다. 尙前述한대로 兼愛하는 無差別平等의愛인人間으로서 맞당히밝아야될 兼愛의道는 天意에根源한것입니다. 墨子는 이兼愛의正當한것을三表說로 證明했습니다. 三表라는 것은 尙三大標準을 일음이니 尙 (一) 本, (二) 原, (三) 用이것입니다. 本이란 것은 天意입니다. 天은萬物을 化育하는바로 天은 一視同仁하는愛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尙兼愛는 天意로서 이첫재標準에 比초여正當한것입니다. 原이란 것은 先王의敎와人民의情으로서 兼愛는先王의敎에考하던지 一般人民의論에徵하던지 다正當한것입니다. 이尙 둘째標準에 合하는것입니다그리고用이란 것은 實際效果를意味하는것으로서 兼愛는 實際에쓰어 決코有害한것이안이라고함입니다. 이尙 셋재標準에適合한것입니다. 이와갓치 그의主義인兼愛는 三大標準에 比초여 正當하다고 그가 證明했습니다. 그中에 第一標準을 天意에둔 것은 다시생각할만한點입니다.

(五)尙同說- 이尙同說은 墨子의政治說이라고볼만한것인데 이說의根源도 亦是 天意에잇다는點은 變함없습니다. 이제그의說을 보건대 人間이처음에는 一定한義라고할것이없습니다. 다만 各人各々一義를 가졌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열사람이잇스면 열義가잇습니다. 이와갓해서 사람마다 各々그義를내세우고 서로맞토기때문에 그生을完保할수가없습니다. 이래서안될 것을 깨닫고 天下의賢哲한者를選하여 이를 天子로삼습니다. 天子는自己한사람이 天下를 다스리지못할것임으로 尙그中에 賢可한者를 選하여 三公으로하였습니다. 三公은 다시 더희를 돕기爲하여 諸侯를 세웠습니다. 諸侯는 다시 政長을擇했습니다. 이러케되어 政長은 諸侯의是로써 一鄉의義를 同一히합니다. 그러면 一鄉의義는 一임이다. 諸侯는 三公의是로써 그國中의義를 同一히하게 하니 이에 國中의義는 一임이다. 다시 三公은 天■■■■■■■■는바로 天下의義를國一히합니다. 그리고 天子는 天地鬼神의 뜻(天意)을 따라서 그義를定합니다. 이와갓치 아래로 우에니르기까지 그義를行한다고하면 이에그社會는 늘平和를 保存할수가잇다고하는 것이 그의說입니다. 이를보건대 墨子는社會의平和의根源을 天에둔것이 分明합니다. 이것을일함하여 尙同說이라합니다.

이러케 墨子의思想을 粗略하게적었습니다. 그의無差別한平等的인兼愛와 그의力說한非戰論은 더人道로하여곰 徹底한實踐主義的社會學者인것을 表明하게합니다. 當時에잇서서 갓흔社會狀態를 보고 老子流에서는 皆命論的傾向을

取한데反하야 墨子는 大膽하게 非命說을 主張한 것은 實로 그가力行의偉大한것과 努力의人道가 天意에宜한것을 看破한것으로써 그의 現實的執着性を 보였습니다. 그리고그는 學的으로도 注意할만하니 곳그의主張이 方法論的인것입니다. 이方法論的으로 그思想을說述한것은 當時支那의普通思索家에잇서서 缺如했던것입니다. 그의三表說이나 尙同說을 볼새에 우리는 그續釋法, 쏘는 歸納法의萌芽가 잇는 것을 看過할수업습니다. 一九二四年七月二十四日